

# 元好問의 杜詩 引用的 특징과 그 의의

梁恩鮮\*

## <목 차>

1. 서론
2. 두시 인용의 특징
  - 2.1 서정적 詩句의 인용
  - 2.2 時空間의 확장
  - 2.3 詩句의 翻案
3. 두시 인용의 의의
  - 3.1 정서의 객관화
  - 3.2 서정시의 서사화
  - 3.3 읽는 시의 회화화
  - 3.4 감정의 예술적 승화
4. 결론

## 1. 서론

金元시기에 先秦시기부터 문학적 우위를 차지해 온 詩가 그 자리를 通俗文學에 내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속문학의 발전기라고 일컬어지는 금원 시기에 후대의 문학 비평가들에게 '시인다운 시인'으로서 인정받는 시인은 손에 꼽힐 정도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1360여수의 시를 남긴 元好問은 唐詩와 宋詩를 집대성하였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그의 시에 있어서의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고 있는 시인이다.<sup>1)</sup> 하지만 그의 시에 대해 호평만 있는 것은 아니다.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博士課程.

宋代에 黃庭堅이 다른 시인의 시를 직접 인용한 이후로 받아들인 ‘표절’이라는 이름은 원호문에게 해당되는 평가이기도 하다. 원호문의 시에도 전대 시인의 시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한 시인의 여러 시들 중에서 한 구절을 골라내어 짜깁기 한 작품도 있다.<sup>2)</sup> 이러한 시들은 대개 비평가들로부터 ‘표절’이라 하여 그 문학적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詩選集에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호문의 시에서 전대 시인들의 시구를 인용하고 있는 시구는 200여구 정도이며,<sup>3)</sup> 唐宋代的 杜甫, 韓愈, 李白, 李賀, 蘇軾, 黃庭堅 등의 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중 杜甫의 시를 인용한 시는 대략 110수 정도로<sup>4)</sup>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두보와 원호문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원호문의 七言律詩와 원호문이 《杜詩學》을 편찬하면서 쓴 서문 <杜詩學引>을 통해서 본 원호문의 두시에 대한 문학적 평가, 두보의 <戲爲六絕句>를 모방하여 쓴 <論詩絕句三十首>, 두보의 社會詩와 원호문의 喪亂詩 등을 비교하는 등이다. 더 나아가 원호문의 두시 인용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호문이 인용하고 있는 두시가 무엇이며 인용의 형식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원호문이 두보의 어떠한 점을 계승하고자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원호문이 두보의 어떠한 詩句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시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인용하고 있으며 그 문학적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1) 鈴木修次, 《漢詩大系20·元好問》(集英社, 1983), 56쪽.

2) 원호문의 <雜著五首>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시는 陶潛의 <飲酒二十首>, <雜詩十二首>, <歸園田居五首>, <擬古九首>, <歸去來兮辭>, <九日閑居> 등의 29수의 시에서 한 구절씩만을 취해 만든 ‘集句’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3) 池世權, 《元好問詩研究》(韓國外國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261쪽.

4) 中國元好問學會 編, 《紀念元好問800誕辰文集》(山西人民出版社, 1992), 198쪽.

## 2. 두시 인용의 특징

원호문은 당송대 시인들의 시구 중에서도 특히 두보의 시구를 즐겨 사용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호문의 두보에 대한 견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論詩絕句三十首>는 원호문이 두보의 <戲爲六絕句>를 계승하여 역대 시인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두루 적어놓은 작품으로, 그의 문학 이론을 이해하는 데 증거가 되는 귀한 자료이다. 두보의 문학적 성취에 대한 원호문의 견해는 제11수에 잘 드러나 있다.

眼處心生句自神.	눈으로 보고 마음에서 생겨나 시구가 절로 신묘해지는 것이지
暗中摸索總非眞.	어둠 속에서 더듬어보는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니라네
畫圖臨出秦川景.	직접 가서 진천의 경치를 그려내었으니
親到長安有幾人.	몸소 장안 땅에 가본 사람 몇이나 될런고

원호문의 문학이론을 대표하는 것은 ‘작가의 진심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以誠爲本)’는 것이다. 진천의 경치를 그리고자 한다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자신의 감정을 마음으로부터 읊어야 하는 것이다. 원호문은 두보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사실적인 필치와 작품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을 높이 샀던 것이다.

원호문은 ‘두시학’이란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두보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당시 시단을 주도하던 문인들의 두시에 대한 견해까지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정리하여 《杜詩學》을 편찬하였다. 비록 이 책이 현전하지는 않지만 두시에 대한 견해의 일면은 그가 남긴 서문 <杜詩學引>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는 일찍이 자미의 신묘함을 불가에서 말한 ‘배움이 더 배울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 바 있다. …… 따라서 두보의 시를 ‘한 자도 유래가 없는 것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옛 사람들로 부터 따온 것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다. 전인들이 자미가 전고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말할 때 물속에 소금을 풀어놓은 것처럼 흔적

이 없다고 비유했는데, 참으로 훌륭한 비유이다.<sup>5)</sup>

원호문이 보기에 두보는 수련과 연마의 과정을 통해 전대 시인의 시를 배합 하되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고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위대한 시인이었다.<sup>6)</sup> 실천적인 연마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던<sup>7)</sup> 원호문이 두보의 시를 가장 많이 인용하게 된 것은 시인으로서의 두보에 대한 그의 문학적 평가와 관련해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 2.1 서정적 詩句의 인용

원호문(1190-1257)의 생애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난리를 피해 남쪽으로 가 三鄉(지금의 河南省 宜陽縣)에 머물던 시기(-1217)이고, 둘째는 嵩山에 은거하던 시기(1218-1225), 셋째는 세 곳에서 縣令을 지낸 시기(1226-1231), 넷째는 금나라 멸망 후 몽고군에 유폐된 시기(1232-1238), 다섯째는 遺民시기(1239-1257)이다.<sup>8)</sup> 원호문이 두시를 인용한 시를 각 시기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생애	三鄉시기	嵩山시기	縣令시기	유폐시기	遺民시기
두시 인용시	4수	14수	7수	25수	42수

원호문의 생애 중에서 비교적 평안했던 시기는 삼향에 머물렀던 시기와 鎭

5) 《遺山集》 卷36, <杜詩學引>: 竊嘗謂子美之妙, 釋氏所謂學至於無學者耳. …… 故謂杜詩爲無一字無來處亦可也, 謂不從古人中來亦可也. 前人論子美用故事, 有著鹽水中之喻, 固善矣.

6) 고진아, <金元代 杜詩學>, 《中國學研究》 제24집, 중국학연구회, 2003, 77쪽.

7) <答王輔之>: 我詩初不工, 研磨出艱辛.

8) [金]元好問 著, 狄寶心 校注, 《元好問詩編年校注》(中華書局, 2011), 1-4쪽.

9) 池世權의 《元好問詩研究》, 260-268쪽에 열거된 시를 정리하여 통계를 낸 것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언급해둔다.

平(河南省 鎮平縣), 內鄉(河南省 內鄉縣), 南陽(河南省 南陽) 등의 세 지역에서 현령을 지냈던 시기였다. 표를 살펴보면 두시를 인용하고 있는 원호문의 시는 몽고군에 의해 유폐되었던 시기와 금나라 멸망 후 유민으로 살아갔던 시기, 승산에 은거했던 시기 등 어려움에 처해 있던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청년기에는 蘇軾에 관심을 가졌던 원호문이 두보를 배운 시기는 금나라 멸망 이후였다.<sup>10)</sup> 원호문은 시의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두보의 칠언율시를,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회시를 배우고자 했다고 알려져 있다.<sup>11)</sup> 만년에 대량으로 지은 喪亂詩는 “시에 깃든 정신이 두보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며, 천년이 지난다 해도 다시 얻을 수 없는 문장이다.”라는<sup>12)</sup> 칭송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金代의 詩史’라 불릴 정도로 憂國憂民의 사상이 깃들어 있으며 두보의 침울둔좌의 풍격을 계승하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원호문이 이 시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두보의 시구는 당시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회시가 아닌 인생관이나 처지를 묘사한 것이 주를 이룬다. 七言律詩 두 수의 연작시로 이루어진 원호문의 <答晁公憲世契二首(조공헌의 <世契(대를 이은 교분)> 시에 답하여)>를 보자.

## 제2수

通家能有幾人存,	대대로 교유하여 몇 사람이나 남을런고
華屋生平得細論.	화려한 저택에서 평소에도 자세히 논했었지
入座舊曾稱小友,	예전엔 일찍이 들어앉아 어린 벗이라 칭하였건만
挾書今復授諸孫.	지금은 책을 끼고 여러 자손들을 받아보네
已煩學舍分餘俸,	학사에서 남은 녹봉 나눔에 이미 바뻐오니
更約田家共老盆.	농가의 오래된 질그릇동이 함께 하기를 다시 기약하네
一諾知君重山嶽,	그대가 한 번 승낙을 큰 산처럼 무겁게 여김을 잘 알고 있으니
車行五日是并門.	수레로 닷새를 가면 바로 병주라네

10) 安淑榮, <元好問詩歌藝術探析>, 《白城師範學院學報》, 2004年03期, 31쪽.

11) 원호문의 칠언율시와 상란시에 대한 두보와의 영향 관계를 다룬 것으로 <杜甫與元好問七言律詩比較>(陳琛, 《皖西學院學報》, 2006年03期), <論元好問七言律詩的審美結構>(詹杭倫, 《民族文學研究》, 2011年03期), <試論元好問的喪亂詩創作>(羅海燕·王素美, 《兵團教育學院學報》, 2008年06期) 등의 논문이 있다.

12) [清]高步瀛, 《唐宋詩學要》: 神似杜公, 千載以來不可再得.

이 시는 일종의 贈答詩이다. 제1수에서는 인재가 가득한 조공헌의 집안을 칭송하고, 제2수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신과 조공헌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수련에서는 “대대로(通家)”라는 시어로 제1수를 잇고 청자와 평소애 나누었던 교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과거(舊)와 현재(今)로 나누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와 청자의 달라진 모습을 함께 묘사하였다. 경련에서 역시 부사 “이미”와 “다시”로 과거와 미래의 시간과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련은 화자에게 하는 말로, 화자가 있는 병주까지 직접 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 두 수의 연작시는 제목의 ‘世契’라는 글자를 각각 나누어, ‘대를 이은’의 ‘世’자는 제1수에서, 교분을 의미하는 ‘契’자는 제2수에서 서술하고 있다. 경련의 둘째 구에 인용된 두보의 原詩 <少年行二首(소년의 노래)>를 살펴보자.

## 제1수

莫笑田家老瓦盆,	농가의 오래된 질그릇 동이를 비웃지 말게나
自從盛酒長兒孫.	술을 채워 마시는 것에서부터 자손까지 길렀으니
傾銀注玉驚人眼,	은 술통 기울이고 옥잔에 술을 따라 사람 눈을 놀라게 해도
共醉終同臥竹根.	함께 취하면 결국 모두 대 뿌리에 눕는다네

## 제2수

巢燕引雛渾去盡,	둥지의 제비는 새끼 거느리고 모두 다 떠났고
江花結子也無多.	강가의 꽃은 열매를 맺었으나 또한 많지 않구나
黃衫年少來宜數,	노란 적삼 입은 젊은이, 의당 자주 와야 하니
不見堂前東逝波.	집 앞 동으로 가는 물결을 보지 못했는가

두보의 이 시 또한 七言絶句로 구성된 연작시이다. 제1수는 질그릇 동이와 은 술통과 옥잔이 다를 바 없다고 하여 齊物에 대해 達觀해야 한다는 깨달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제2수는 좋은 봄날은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때에 맞게 행락해야 한다는 계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sup>13)</sup>

원호문 시에 인용된 두보의 시구는 제1수의 “농가의 오래된 질그릇 동이”이

13) 《杜詩詳註》 卷10: 首章, 有達觀齊物意, 乃曉悟少年之詞. …… 次章有及時行樂意, 乃鼓舞少年之詞.

다. 두보가 “비웃지 말라(莫笑)”라고 한 것을 원호문은 같은 구조에 앞의 서술어를 “다시 약속하네(更約)”로 바꾸어 놓고 있다. 원호문의 시만을 본다면 질그릇 동이를 함께 하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두보의 시를 알고 있다면 화자는 이 질그릇 동이에 ‘술’을 마시자는 의미를 담아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두보의 시적 의미가 한 번 더 더해진다. 두보의 시 제2수에서 “자주 와야 한다”는 말이 원호문의 시에서도 “자주 오라”고 하는 당부의 말과 연결되는 것이다.

원호문은 두보의 인생관을 담고 있는 시구를 기억하고 자신의 시에 인용했다. 하지만 원호문은 두보의 시를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다. 서술어를 바꾸면서 두보의 시에 사용된 전체적인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하게 전대 시인의 시구를 인용만 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또 두보의 <發劉郎浦(劉郎浦를 떠나며)>의 “하얗게 센 머리로 어부와 머물기 물리니 누런 모자 쓰고 푸른 짚신 신고 돌아가리”라는<sup>14)</sup> 시구를 원호문은 <贈蕭鍊師公弼(소연사 공필에게 보내다)>에서 “근자에 선가에 관부가 많다 하니 누런 모자 쓰고 푸른 짚신 신고 돌아오시게”로<sup>15)</sup> 인용하고 있다. 이외에 두보가 <將赴成都草堂途中有作先寄嚴鄭公五首(성도 초당으로 가는 도중 먼저 엄정공에게 부치는 시 다섯 수)> 제4수에서 “삼 년을 나다녀 피골만 남아 있으니 인간 세상엔 진실로 행로의 어려움 있다네”<sup>16)</sup>라고 하여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묘사한 시구를 <懷益之兄(익지형을 그리며)>에서 “삼 년을 유랑하여 피골만 남아 사해에서 바라보니 형제뿐이로군요.”<sup>17)</sup> 인용하기도 하였다.

유폐시거나 유민시기에 원호문은 두보의 사회시가 아닌 달관의 인생관이 드러나 있거나 처량한 처지를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시구를 인용하고 있다. 이는 원호문이 만년에 두보의 사회시와 풍격이 유사한 상란시를 대량으로 지은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특기할 만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평소 추송하던

14) <發劉郎浦>: 白頭厭伴漁人宿, 黃帽青鞋歸去來.

15) <贈蕭鍊師公弼>: 仙家近日多官府, 黃帽青鞋歸去來.

16) <將赴成都草堂途中有作先寄嚴鄭公五首>: 三年奔走空皮骨, 信有人間行路難.

17) <懷益之兄>: 三年浪走空皮骨, 四海相望只弟兄.

두보와의 정서적 교감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원호문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 2.2 時空間의 확장

시라는 장르는 글자수, 압운, 평측이나 대구 등 많은 제약이 따른다. 글자수의 제한으로 인해 작품 속의 시공간 또한 제한적이며 독자 개개인의 서로 다른 이미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산문이나 소설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구절 간의 도약이 심한 경우도 허다하여 그 숨은 의미를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전달하려는 이미지가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표현이 참신하며 시인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시를 좋아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인은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시적 도약’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한편으로는 그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마련해 놓게 된다. 원호문은 장치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인용의 방법을 선택한 셈이다.

다음은 五言古詩의 연작시로 구성되어 있는<sup>18)</sup> 원호문의 <讀書山月夕二首(독서산 달 밝은 밤에 두 수를 짓다)>이다.

### 제1수

層崖多古木,	층층 절벽 아래로는 고목이 많은데
細路深莓苔.	좁은 길에는 이끼가 수북이 자랐다
柴門開曉日,	사립문 여니 새벽 해 뜨고
雲際青山來.	구름 가에서 청산이 오네
靜中有眞趣,	고요한 가운데 참된 운치 있나니
孤賞何悠哉.	홀로 감상하기 얼마나 한가하고

18) 원호문은 대략 919題 1363首의 시를 남겼다. 그 중에서 187제 639수라는 많은 양의 연작시를 지은 바 있다.(金俊淵·梁恩鮮, <元好問 七絶 連作詩 研究>, 《中國學論叢》35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 53-54쪽.)

## 제2수

久旱雨亦好,	오랜 가뭄 끝에 비 내리니 역시 좋고
既雨晴亦佳.	비 내렸다 개이니 이 또한 좋구나
胡牀對明月,	간이 의자에 앉아 명월을 마주대하니
樹影含清華.	나무 그림자는 맑은 달빛 머금었네
牆東有洿池,	담장 동편엔 연못 있기에
欹枕聽鳴蛙.	베개에 기대 개구리 우는 소리 들네

이 두 수의 시는 하나는 독서산에 대한 감상일, 다른 하나는 好雨에 대한 감상을 적고 있어 작품만 본다면 서로 다른 제목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제1수에서는 1,2구의 독서산의 경관에 대한 묘사를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독서산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감상을 적고 있다. 3,4구에서는 달 밝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 해를 맞이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5구의 ‘참된 운치(眞趣)’는 陶淵明의 <飲酒> 20首 중 제5수에서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다 문득 눈에 들어온 남산을 바라보며 “이 가운데 참된 뜻이 들어 있나니, 설명하려 하다가도 어느덧 말을 잊네.”<sup>19)</sup>라고 했던 것을 변용한 것이다. 가장 훌륭한 시는 入神의 경지에 오른 시라고 했던 南宋 嚴羽의 말처럼<sup>20)</sup> 깨달음으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수법으로 入神의 경지에 올랐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구절이다.<sup>21)</sup> 제1수는 “이끼”와 “사립문”, “산”, “고요함”, “홀로 감상하기” 등의 시어가 시 전반의 분위기를 아우르고 있어 시적 화자가 보고 있는 고요한 가운데 참된 운치가 가득한 경물이 한 폭의 그림처럼 독자의 눈앞에도 그려지는 듯하다.

제2수에서도 제1수를 이어받아 “밝은 달”에 대한 감상을 적고 있다. 1,2구에 서는 가뭄 끝에 내렸다 그친 단비에 기뻐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

19) <飲酒>: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中有眞意 欲辨已忘言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 유연히 남산이 눈에 들어오네. 날 저물자 산 기운 더욱 좋아져, 날던 새도 서로들 어울려 돌아오네. 이 가운데 참된 뜻이 들어 있나니, 설명하려 하다가도 어느덧 말을 잊네.)

20) <滄浪詩話·詩辨>: 詩之極致有一, 曰入神. 詩而入神, 至矣, 蔑以加矣!

21) 李知文, <元好問山水詩的成就及其特色>, <貴州社會科學>, 1991年02期, 40쪽.

다. 3,4구에서는 맑게 갠 밤에 제목과 제1수에 언급되었던 ‘달’을 마주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5,6수에서는 고요한 가운데 베개에 기대어 담장 동쪽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는 화자의 모습이 연상된다. 하지만 제2수에서 중요한 것은 “밝은 달”을 보게 되기까지의 과정이다. “밝은 달”을 보게 되는 과정에 “비”가 필요했던 이유는 두보의 원시를 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

<雨過蘇端(비 내리는 날 소단의 집에 가다)>

雞鳴風雨交,	첫닭이 울자 비바람이 몰아치니
久旱雨亦好.	오랜 가뭄 끝에 비 또한 좋고말고
杖藜入春泥,	지팡이 짚고 진흙탕 길에 든 것은
無食起我早.	먹을 것 없어 내가 일찍 일어났기 때문이라

.....

<喜晴(맑게 갠 것에 기뻐하며)>

皇天久不雨,	하늘에서 오랫동안 비 오지 않다가
既雨晴亦佳.	비 내렸다 개니 이 또한 좋구나
出郭眺四郊,	성곽 나가 사방 들녘 바라보니
蕭蕭增春華.	봄꽃에 쓸쓸함을 더해주네
青熒陵陂麥,	푸르게 반짝이는 언덕의 보리
窈窕桃李花.	곱고 아리따운 복숭아꽃 자두꽃
春夏各有實,	봄이건 여름이건 모두 열매 맺건만
我飢豈無涯.	내 주린 배는 어찌 끝이 없는가

.....

두보의 두 수의 시 모두 오랜 가뭄을 해결해주는 단비를 소재로 하고 있는 단순한 詠懷詩이다. 원호문 시의 1구는 <雨過蘇端>의 구절을, 2구는 <喜晴>의 구절을 사용한 것이다.<sup>22)</sup> 1수에서 제목의 달 밝은 밤(月夕)을 읊고 있다고 한다면, 2수에서는 제목을 따로 달지는 않았지만 두보의 시구를 빌어 가뭄을 해결해 줄 단비가 내렸다가 ‘맑게 갠 것에 기뻐하며(喜晴)’라는 시제를 따로 달고 있는 셈이다. 제2수의 시공간적 배경은 단순히 ‘비 개인 밤’이 아니라

22) 시의 초점이 누군가를 찾아 가는 것이 아니라 ‘단비’와 ‘맑게 갠 날’에 있으므로 원호문 시에 사용된 실제 이미지는 <雨過蘇端>보다 <喜晴> 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밝은 달을 볼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단비’가 내렸다가 그친 후 ‘상쾌한 밤’으로 확장된 것이다.

### 2.3 詩句의 翻案

원호문은 두보의 서정적인 시구를 즐겨 인용하고 글자수의 제한으로 인한 배경범위 설정의 한계라는 단점을 인용의 방법을 통해 극복하고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확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고를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하여 극적 분위기를 더해주는 변안법을 시구의 인용에도 적용하였다.

游絲落絮春漫漫,	아지랑이 버들개지 봄하늘에 하늘하늘
西樓晚晴花作團.	맑게 갠 저물녘 서루에선 꽃들이 한덩어리
樓中少婦弄瑤瑟,	누각에선 어린 아낙 비파 타는데
一曲未終坐長歎.	한 곡조 끝나기도 전에 앉아 길게 탄식하네
去年與郎西入關,	작년에는 낭군과 더불어 서쪽으로 관문에 들어가
春風浩蕩隨金鞍.	호탕한 봄바람에 금빛 안장 따라갔건만
今年匹馬妾東還,	금년에는 이 몸은 필마로 동쪽으로 돌아오니
零落芙蓉秋水寒.	부용꽃 시드는 가을 강 차기도 하여라
并刀不剪東流水,	병주의 가위로도 동쪽으로 흐르는 물 자를 수 없으니
湘竹年年露痕紫.	소상의 대나무 해마다 눈물 자국 진해져
海枯石爛兩鴛鴦,	바다 마르고 돌이 문드러져도 한 쌍의 원앙새
只合雙飛便雙死.	만나 쌍쌍이 날고 함께 죽게 되리
重城車馬紅塵起,	겹겹의 성엔 거마에 붉은 먼지 일어나는데
乾鵲無端爲誰喜.	까치는 까닭 없이 누구로 인해 기뻐하는가
鏡中獨語人不知,	거울 속에서 홀로 말하여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欲插花枝淚如洗.	꽃가지 꽃고 씻은 듯 눈물 닦아내리라

<西樓曲>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내용상 4구씩 모두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七言古詩이다. 1-4구의 첫 단락에서는 ‘봄’과 ‘서루’라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마련하고 “서루의 노래”라는 詩題에 맞게 서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주체를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둘째 단락에서는 어린 아낙이 서루에서

비파를 타며 길게 탄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작년(去年)”과 “금년(今年)”, “봄(春)”과 “가을(秋)”이라는 시간적 대비와 서쪽으로 ‘함께’ 갔다가 동쪽으로 ‘홀로’ 돌아온 상황의 대비를 통해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운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단락은 모두 이별의 아쉬움에 따른 시적 화자의 상상과 과장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옛날 舜 임금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娥皇과 女英의 눈물 자국이 남아 있는 대나무의 반점마저 화자의 눈물에 진해질 것이라며 과장함으로써 화자의 슬픔을 전달하고 있다. 이어서 화자의 시선은 쌍쌍이 나는 원앙새에게로 옮겨간다. 유리왕의 <황조가>와 같이 인간세상의 이별의 슬픔을 노래할 때는 늘 쌍쌍이 어울리는 새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시에서 화자가 본 원앙새는 단순히 쌍쌍이 날고 있는 새가 아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평생을 함께 하며 ‘절대 이별하지 않는’ 새이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시간상으로 화자가 동쪽으로 돌아온 이후의 일을 묘사하고 있다. ‘겹겹의 성’이란 말은 화자가 있는 내성과 외성으로 둘러싸인 사실적인 성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으나,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 많은 거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성으로 들어오지만 화자가 기다리는 낭군은 아니다. 따라서 기쁜 손님이 올 거라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듯 울어대는 까치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별한 여인의 슬픔이 시 전체의 분위기를 관통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시라 할 수 있겠다.

두보의 시구를 인용한 부분은 바로 셋째 단락의 ‘병주의 가위’ 부분이다. 두보의 시구를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두보의 원시인 <戲題王宰畫山水圖歌(왕재가 그린 산수도에 장난삼아 쓴 노래)>의 일부를 살펴보자.

.....

尤工遠勢古莫比, 더욱 먼 곳 형세 잘 그려 고인도 비할 데 없으니  
 咫尺應須論萬里, 지척의 그림을 응당 만 리를 논해야 하리  
 焉得并州快剪刀, 어찌하면 병주의 잘 드는 가위를 얻어서  
 剪取吳松半江水, 오뎡 송강 물 반쪽이라도 잘라내 가져볼꼬

세 단락으로 구성된 七言古詩 중의 마지막 단락이다. 두보의 시적 화자는 '병주의 잘 드는 가위'를 마지막 단락에 배치하여 시 전체의 감정을 수렴하고 있다. 왕재의 신묘한 그림 솜씨를 칭송하고 자신이 병주의 가위라도 얻는다면 그 그림의 일부라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장난삼아(戲)'라는 제목에 부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원호문 시와 두보 시의 시적 화자는 모두 가위를 물을 자르는 데 사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로 사용되고 있다. 원호문의 시에서는 동쪽으로 가야만 하는 현실을 깨닫고 허무하게 희망을 가지려 했던 두보의 그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단순히 두보와 관련된 전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방법이 다르다. 같은 구절 안에서 원호문과 두보의 목소리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실제 독자는 이별에 대한 여인의 슬픔과 절망감을 십분 잘 이해할 수 있다.

### 3. 두시 인용의 의의

원호문은 두시를 단순하게 斷章取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두보의 시구를 인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원호문이 다른 사람의 시구를 인용할 때에 가장 주의했던 점은 창조성이었다.<sup>23)</sup> 원호문은 소식과 황정건을 모두 존중하였으나 진부함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하지만 원호문이 전대 시인의 成句를 자신의 시에 사용한 경우도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원호문의 시학 연원을 밝히고 후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원호문 시가 연구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던 錢鍾書조차도<sup>24)</sup> 원호문의 시작 태도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23) 이종진, 《원호문시선》(문이재, 2005), 181쪽.

24) 張靜, <錢鍾書先生對元好問詩歌研究的貢獻>, 《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年06期.

<赤壁圖>에 ‘事殊興極憂思集，天淡雲閑今古同.’이라는 구절이 있다. …… ‘事殊’구는 두보의 <漢陂行>에서, ‘天淡’구는 杜牧의 <宣州開元寺水閣>에서 빌려 쓴 것이다. 이는 마치 (원호문의)<和白樞判>의 ‘白日放歌須縱酒，清時有味是無能’에서 (앞 구에서는)두보의 시구를 빌려 (뒷 구에서는)두목의 시구를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 <赤壁圖>의 후반부에서도 여전히 두보의 (<戲爲六絕句> 其四의) ‘凡今誰是出群雄’의 구를 빌려 마구잡이로 끌어다 운을 맞추었으니 마땅히 (이 사람의 전고를 끌어다 썼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전고를 끌어다 쓰는))‘十八扯’라는 책망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유산의 七古와 雜言에는 늘 이러한 병폐가 있다.<sup>25)</sup>

전종서는 한 聯句 안에 각각 다른 시인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원호문의 시작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원호문의 전대 시인의 시구를 인용하는 태도 자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호문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 인정하고 있던 전종서도 원호문이 전대 시인의 시구를 자신의 시에 빈번하게 인용하는 시작 태도에 대해서만은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다른 시인의 시를 인용하다보면 논리나 시 구조의 전개상 억지스럽거나 진부해지기 쉬우므로 전종서의 이러한 비판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원호문의 이러한 시에 비판만 가해졌던 것은 아니다. 方東樹는 원호문이 전대 시인의 成句를 인용한 시의 경지를 다른 사람은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며 극찬하기도 했고,<sup>26)</sup> 翁方綱은 원호문이 두보의 시구를 인용하고 있는 시에 대해 ‘초탈’한 경지에 다다랐다고 칭송하기도 했다.<sup>27)</sup> 옛 사람들의 시를 읽다 보면 좋아하는 구절이 있게 마련이다. 또 이것을 자신의 시에 우연히 사용하게 될 수도 있는데<sup>28)</sup>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호문의 시에서 두시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그 문학적 의의라 하겠다.

25) 錢鍾書, 《談藝錄》, 中華書局, 1984: <赤壁圖>‘事殊興極憂思集, 天淡雲閑今古同.’ …… 蓋‘事殊’句借自老杜<漢陂行>、‘天淡’句借自小杜<宣州開元寺水閣>. 正如其<和白樞判>、‘白日放歌須縱酒, 清時有味是無能.’亦借老杜句對小杜句耳. 此篇後半尚借杜句‘凡今誰是出群雄’, 拉雜趁韻, 宜招‘十八扯’之訕矣. 遺山七古雜言, 常有此弊.

26) 方東樹, 《昭味詹言》卷一二: 成句絡繹奔赴. 氣欲縱橫, 神來之候, 他人不能妄爲

27) 翁方綱, 《石洲詩話》卷4: 置用杜句, 陸每有之, 然與遺山之超脫不同.

28) 葉夢得, 《石林詩話》卷中: 讀古人詩多, 意所喜處, 誦憶之久, 往往不覺誤用爲己語.

### 3.1 주관적 정서의 객관화

원호문은 두보의 시구 중에서 서정적인 시구를 즐겨 사용했다. 주관적 정서를 형상화하는 서정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정서를 예술적으로 객관화시켜 줄 이미지나 사건 등이 필요하기 마련이다.<sup>29)</sup> 원호문은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를 객관화할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로 두보의 시구를 선택했다.

서정시의 성공여부는 객관적 상관물의 획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sup>30)</sup> 객관적 상관물은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되는 객관적 상관물은 시를 읽는 독자(또는 청자)에게 충분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만 한다. 황정건 이후 두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두시의 문학적 지위가 점차 확립되어갔으며, 이후 두보는 詩聖이 되었고 그의 시는 詩史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시인으로서 두보의 문학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소식과 황정건을 추송했던 金元代 시기 문인들에게도 두보의 시는 기본적으로 배워야할 대상이었다.<sup>31)</sup> 따라서 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두보의 시야말로 자신의 정서를 예술적으로 객관화할 장치로 더없이 좋은 수단이었을 것이다. 작품을 통해 살펴보자.

狼藉麻衣見酒痕,	마의에 술자국 낭자하게 보이니
憶君醉別柳邊村.	그대와 술마시며 이별한 것 생각나네
離愁擾擾理還亂,	어지러운 이별의 근심 다스러도 여전히 혼란스러우니
來事悠悠誰與論?	아득한 장래의 일 누구와 논하리오?
瘴海漸添春浪闊,	습한 바닷가에 드넓은 봄 물결 더해가건만
冰崖惟覺暮煙屯.	얼음 절벽에 가득한 저녁연기만 느껴져누나
人間底似三峰好,	인간 세상은 꼭 화산 삼봉처럼 좋아
箭筈通天有一門.	하늘로 통하는 화살촉만한 문하나 있으리 (원호문)

29) 나병철, <장르의 혼합현상과 서사적 서정시의 전개>, 《畿甸語文學》 제7집,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2, 38쪽.

30) 나병철, 위의 논문, 38쪽.

31) 고진아, 위의 논문, 71-73쪽.

西岳峻嶒竦處尊,	화산은 드높이 솟아
諸峰羅立似兒孫.	여러 산봉우리 빙 둘러 솟아있구나
安得仙人九節杖,	어디에서 선인의 아홉 마디 지팡이 얻어
拄到玉女洗頭盆?	옥녀가 얼굴 씻는 돌절구 만들 수 있을까
車箱入谷無歸路,	수레같은 협곡 들어가면 돌아나오는 길 없고
箭栝通天有一門.	하늘로 통하는 화살촉만한 문하나 있으리니
稍待秋風涼冷後,	가을바람 불기를 더 기다려 서늘해지면
高尋白帝問真源.	저 높이 백제를 찾아 참된 근원 물어보리라 (두보)

예로 든 시는 각각 원호문의 <送周帥夢卿之關中二首(관중으로 가는 주수몽경을 전송하며 두 수를 짓다)>와 두보의 <望岳>이다. 다른 산과 비할 수 없는 화산의 형세를 묘사한 두보의 시에서 함련의 “車箱”과 “箭栝”은 모두 화살 끝처럼 좁은 산마루와 수레처럼 우묵한 화산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원호문은 두시의 함련 중에서도 둘째 구 “하늘로 통하는 화살촉만한 문하나 있으리”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sup>32)</sup> 원호문의 시는 이별에 대해, 두보의 시는 화산에 대해 묘사하고 있어 주제는 다르지만 “箭栝”을 화산으로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같다. 원호문은 관중지역으로 가는 주수몽경을 위해 화산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말로 쓰지 않고 두보의 그 시구를 인용함으로써 화산의 험준한 산세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보이고 있는 것이다.

### 3.2 서정시의 서사화

원호문은 서정적 시구를 인용하여 주관적 정서를 예술적으로 객관화하기도 하고, 두시에 사용된 시공간적 배경을 자신의 시에 끌어들여 자신의 시에서

32) 이 시는 두보의 시 외에도 韓偓의 “봄날이 아까워 날마다 술에 취해 해롱해롱 깨고 보니 옷자락에 술자국 범벅일세(惜春連日醉昏昏, 醒後衣裳見酒痕.)”라는 <春盡>의 구절과 南唐 李後主(李煜)의 “잘라도 잘리지 않고 다스려도 여전한 혼란스러우니 이것이 바로 이별의 근심이라(剪不斷, 理還亂, 是離愁.)”라는 <烏夜啼>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두 수의 시 모두 이별의 근심을 읊은 작품이다.

시적 배경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는 시 고유의 특징인 이미지보다는 소설처럼 이야기의 전달, 시의 서사성에 치중하게 된다. 시 속에 또 다른 시, 원호문의 시 속에 두보의 시가 또 한 편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은 五言古詩로 지은 <豐山懷古(풍산에서 옛일을 생각하며)>라는 작품이다.

豐山一何高,	풍산은 어찌나 높은지
古屋蒼煙重.	옛 집들에 푸른 안개 무겁네
開門望吳楚,	문을 열어 오초 땅을 바라보는데
鳥去天無窮.	새가 날아가니 하늘이 끝이 없구나
連山橫巨鼇,	연이은 산은 큰 자라가 가로 누운 듯하고
白水亘長虹.	맑은 물은 긴 무지개를 걸쳐 놓은 듯하다
川原鬱佳氣,	내와 들판에 좋은 기운 무성한 것은
自古南都雄.	자고로 남도가 뛰어났기 때문이네
炎精昔季興,	화덕은 옛날에 중흥했고
臥龍起隆中.	와룡은 응중에서 일어나
落落出奇策,	많고많은 기이한 계책 내놓았고
言言揭孤忠.	언언절절 외로운 충정
.....	
至今有遺恨,	지금 남은 한 있어
廟柏號陰風.	묘당 앞 측백나무 찬바람에 우는구나
舊聞清泠淵,	옛날에 듣건대 청냉연에
天籟如撞鐘.	천뢰가 종을 치는 소리와 같았다지
.....	

이 시는 마지막 두 구만 제외하고 한 단락에 4구씩 모두 11단락으로 구성된 懷古詩이다. 첫 단락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풍산을 묘사하고 이어 둘째 단락에서도 여전히 풍산의 웅장한 모습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셋째 단락에서부터가 본격적으로 회고하는 내용으로, 제갈공명의 신묘한 책론과 그의 외로운 충정으로 운을 떼고 있다. 본고에서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넷째 단락에서 여덟째 단락까지 모두 제갈공명과 관련된 일화들을 서술하고 아홉째 단락에서 찬바람에 우는 '묘당 앞 측백나무'로 제갈공명을 묘사하고 있다.

원호문의 이 시에서 배경으로 사용된 두보의 서사적 상황은 아홉째 단락의 ‘묘당 앞 측백나무’에서 투입되었다. 두보의 七言古詩 <古柏行(옛 측백나무의 노래)>의 원래 배경을 살펴보자.

孔明廟前有老柏,	제갈량 묘 앞에 늙은 측백나무 있으니
柯如青銅根如石.	줄기는 청동이요 뿌리는 돌과 같도다
霜皮溜雨四十圍,	새하얀 껍질은 비가 흘러내린 듯 사십아름이고
黛色參天二千尺.	청흑의 빛깔은 하늘과 섞인 듯 이천 자나 되네
雲來氣接巫峽長,	구름이 나와 기운에 가까워지니 무협처럼 길고
月出寒通雪山白.	달이 나와 차가움이 통하니 설산처럼 하얗도다
君臣已與時際會,	임금과 신하가 이미 때를 함께 하여 만났음에도
樹木猶爲人愛惜.	나무는 오히려 이 사람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네
憶昨路繞錦亭東,	생각해보니 어제 길은 금강정 동쪽을 두르고
先主武侯同闕宮.	선주와 무후가 신묘를 함께 하였지
崔嵬枝乾郊原古,	높디높은 가지는 마르고 교외 들판은 오래되어
窈窕丹靑戶牖空.	아름다운 단청에 문과 창은 비었으니
落落盤踞雖得地,	높고 듚직하게 자라 땅은 얻었지만
冥冥孤高多烈風.	아득히 홀로 높아 맹렬한 바람 잦기도 하였구나
扶持自是神明力,	지탱하는 것은 자연히 신명한 힘 때문이고
正直原因造化功.	바르고 곧은 것은 원래 조물주의 공덕 덕분이라네

.....

제갈공명의 사당 앞에 서 있는 측백나무를 묘사한 이 작품은 모두 8구씩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각각 첫째 단락에서는 사당 앞 측백나무의 늙름한 모습에 대해, 둘째 단락에서는 높디높게 자랐음에도 바람에 맞서야 하는 측백나무의 운명에 대해, 셋째 단락에서는 세상의 모진 바람을 맞아야 하는 측백나무와 닮은 志士의 운명에 초점을 맞추어 묘사하고 있다.

원호문의 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늙름한 측백나무와 그 모진 운명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이다. 첫째 단락에서는 제목에서 언급한 ‘옛 측백나무’가 위치한 공간적인 배경과 측백나무의 외관에 대해 묘사

하고 있다. 이 측백나무는 선주인 유비의 사당과 함께 위치해 있는 제갈공명의 사당 앞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신하와 군주의 사당이 한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신하를 부러워 할런 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당 앞의 측백나무는 오히려 그 신하인 제갈공명의 운명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첫째 단락의 마지막 구의 '나무'는 화자의 감정을 대변하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사용된 것이다.

첫째 단락만을 보면 서정적 화자가 사람인지 나무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둘째 단락에서 본격적으로 '측백나무의 노래'가 시작되어 이 '나무'가 제갈공명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2구에서는 첫째 단락을 이어 유비와 제갈공명의 사당이 함께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3,4구에서는 그 옛날의 영화는 사라지고 지금은 텅 비어버린 인가를 묘사하였다. 5,6구에서는 뿌리가 돌처럼 단단하고 둘레는 사십 아름에 높이는 이 천 자나 되는 늙은 측백나무가 자신의 높은 키로 인해 다른 나무들에 비해 맹렬한 바람을 더 많이 맞게 된 운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7,8구에서는 바르고 곧게 지탱하고 있는 것은 조물주의 덕분이라고 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 첫째 단락의 '늙은 측백나무의 외관은 둘째 단락의 측백나무 운명의 비극성을 더해주는 장치로 필요했던 것이다.

두보 시의 "측백나무의 노래"가 원호문의 시에 배경으로 사용된 후 달라지는 효과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원호문 시에 등장하는 제갈공명의 "외로운" 운명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원호문의 시에는 "외롭다"는 시어가 두 번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충정"과 다른 하나는 "노래"를 수식하고 있어, 이것이 제갈공명의 외로운 운명을 수식하고 있음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로움은 두시가 배경으로 사용되면서 더욱 강조된다. 원호문 시의 제갈공명의 외로운 '충정(忠)'과 '노래(唱)'에 더해 두시의 배경은 사당 앞의 측백나무처럼 '홀로' 뛰어난(高) 재주를 지녔던 그의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원호문은 이러한 서사적 상황의 설정을 통해 외롭게 홀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제갈공명의 필연적 운명을 부각시켰다.

두 번째 효과는 원호문 시에 나오는 '남은 한(遺恨)'이 구체화된다는 점이다.

원호문의 시만으로 이해한다면 사당 앞의 측백나무의 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두시라는 배경 덕분에 ‘남은 한’이 홀로 높이 자라 모진 바람을 맞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효과는 “찬바람(陰風)”이란 이미지의 변화이다. 원호문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람은 단순한 찬바람이 아니다. 두시라는 배경 속의 바람의 이미지, 즉 “맹렬한 바람”을 “찬바람”에 더하고자 했던 것이다. 찬바람에 맹렬함까지 더해진 바람에 사당 앞 측백나무의 운명적 비극성이 배가되고 있는 것이다.

원호문은 두보의 시구를 단순히 인용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의 서사적 배경으로 두보의 시를 설정하였다. 서정시에 서사성을 가미한 한편의 ‘이야기 시’를 만든 것이다. 제한된 글자수와 함축성이라는 시라는 장르의 특징을 심분 활용한 수법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당시 學詩의 기본이 되었던 두시를 자신의 시에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는 재능은 시인으로서 불리길 원했던 원호문에게<sup>33)</sup> 자부심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 3.3 읽는 시의 회화화

두시를 가장 많이 인용한 시기인 유편시기와 유민시기에 지은 원호문의 시에는 기행이나 산수, 그림에 대해 묘사한 시가 상당하다.<sup>34)</sup> 이는 원호문이 남긴 산수시가 만년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일치한다.<sup>35)</sup> 원호문은 만년에 지은 산수시에 雜言, 七言古詩, 五言古詩의 형식을 주로 사용했는데,<sup>36)</sup> 경물을 묘사하기에 글자수에 제한적인 율시보다 서사성이 강한 고시라는 형식이 적합했기

33) [元]魏初·姜夔, <元好問墓碣>: 某身死之日, 不願有碑誌也, 墓頭樹三尺石, 書曰詩人元遺山之墓, 足矣.

34) <赤壁圖>, <讀書山月夕二首>, <王右丞雪霽捕魚圖>, <空山何巨川虛白庵二首>, <楊秘監馬圖>, <雲峽>, <游龍山>, <雙峰競秀圖爲參政楊侍郎賦>, <晨起>, <賦邢州鶴山>, <看山>, <奚官牧馬圖息軒畫> 등이 있다.

35) 姚乃文, <試論元好問的山水詩>, 《晉陽學刊》, 1990年06期, 91쪽.

36) 姚乃文, 위의 논문, 92쪽.

때문일 것이다. 원호문은 두시를 인용하여 시공간적 배경을 확장함으로써 서정시에 서사적 요소를 가미했을 뿐만 아니라 ‘읽는 시’를 ‘보는 시’로 바꾸어 놓기도 했다. 원호문이 두시를 인용하여 산수에 대해 묘사한 작품을 살펴보자.

太行元氣老不死,  
上與左界分山河。  
有如巨鼇昂頭西入海,  
突兀已過餘坡陀。  
我從汾晉來,  
山之面目腹背皆經過。  
濟源盤谷非不佳,  
煙景獨覺蘇門多。  
湧金亭下百泉水,  
海眼萬古留山阿。  
鬻沸灤水源,  
淵淪晉溪波。  
雲雷涵鬼物,  
窟宅深蛟鼉。  
水妃簸弄明月璣,  
地藏發泄天不訶。  
平湖油油碧於酒,  
雲錦十里翻風荷。  
.....

今朝一掃衆峰出,  
千巖萬壑高峩峩。  
空青斷石壁,  
微茫散煙蘿。  
山陽十月未搖落,  
翠蕤雲旂相蕩摩。  
雲煙故爲出濃澹,  
魚鳥似欲留婆娑。  
.....

태항산의 원기가 영원히 소멸하지 않음은  
위로 천계와 더불어 산하를 나눈 때문일세  
거대한 바다거북 머리 쳐들고 서쪽바다로 들어가는 듯  
우뚝 솟은 곳 지나자 비탈져 내린다  
나는汾州와 췌州에서 왔으니  
산의 눈과 얼굴, 등과 배를 모두 지난 셈이다  
제원과 반곡이 아름답기는 했지만  
안개 낀 풍경은 유독 소문산에만 많구나  
용금정 아래 백문천에는  
샘구멍이 오랜 세월 산굽이에 남아있네  
용솟음치는 샘구멍은 낙수의 근원 되고  
소용돌이치는 백문천은 진계의 물결 되네  
우레 구름 속에는 괴물을 감추고  
동굴 속에는 교룡이 깊숙이 숨어있네  
물의 여신은 명월주 갖고 놀아  
땅속 보물 쏟게 했으니 하늘도 꾸짖지 못하리  
잔잔한 호수 유유하여 술 빛보다 푸르네  
비단 구름 십리에 펼쳐지며 바람에 연잎 나부끼네

오늘 아침 운무를 씻고 못 봉우리 드러내니  
쪽진 머리 같은 수많은 산 높이 솟구쳤네  
푸른 하늘엔 깎아지른 암벽  
자욱한 안개 속엔 흩어진 등나무 잎새  
산의 남쪽은 10월에도 낙엽지지 않아  
비취빛 잎은 깃 술 같은 구름에 스치네  
운무는 일부러 길어졌다 열어졌다 조화부리고  
물고기와 새들도 머물며 춤추려는 듯하네

.....

www.kci.go.kr

던 여러 친구들에게 보이며) >이라는 시이다.<sup>37)</sup> 인용문의 전반부는 백문천의 기이한 형상과 수려한 경관에 대해, 후반부는 소문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자연경관을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에 빗대고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을 변화무쌍하게 묘사하고 있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주어 원호문의 칠언고시 중 가장 으뜸으로 손꼽힌다.<sup>38)</sup>

이 시에서 원호문이 두보의 시를 인용한 시구는 “비취빛 잎은 깃 술 같은 구름에 스치네(翠蕤雲旂相蕩摩)”라고 한 구절이다. 머리 위로 가득한 구름의 모습을 깃 술에 비유하고, 구름이 낮게 깔린 모습과 잎이 무성한 모습을 “스친다(相蕩摩)”라고 표현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하다. 다음은 원호문 시에 인용된 두보의 원시 <魏將軍歌(위장군을 위한 노래)>이다.

.....

君門羽林萬猛士,	궁중의 우림군 일만의 용사
惡若哮虎子所監.	사납기가 으르렁대는 호랑이 같지만 그대가 맡으셨습니다.
五年起家列霜戟,	오년만에 집안을 일으켜 서릿발 같은 창을 진열하게 되니
一日過海收風帆.	하루에 바다를 지나 돛을 거두셨습니다.

.....

星躔寶校金盤陀,	별을 두른 듯한 보옥 장식에 금으로 된 반타
夜騎天駟超天河.	밤에 천마를 타고 은하수를 건너가니
攬槍愴惑不敢動,	혜성과 화성이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翠蕤雲旂相蕩摩.	푸른 깃발 구름 깃발이 서로 출렁이며 스칩니다.

.....

위장군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려진 바 없으나,<sup>39)</sup> 이 시가 위장군의 공적을 칭송하기 위해 지은 것이라는 것은 제목과 그 내용을 통해 쉽게 알

37) 용금정은 지금의 河南省 輝縣市 서북쪽 소문산에 위치한다. 산 아래에는 샘물 구멍이 많아 百門泉이라고도 하였는데, 이 샘물이 땅에서 분출되어 햇빛에 비추면 금처럼 반짝거렸기에 그곳에 위치한 정자에 용금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金]元好問 著, 狄寶心 校注, 앞의 책, 1299쪽 참고.)

38) 최일의, <원호문의 생애와 시>, 《중국문학이론》 제11·12집,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9, 172쪽.

39) 김만원 외, 《두보초기지역해》(술출판사, 1999), 727쪽.

수 있다. 두보의 이 시 또한 원호문의 시 못지않게 비유와 과장의 수법을 통해 위장군의 공적을 묘사하고 있다. 두보의 이 시에서 원호문이 인용한 시구는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이다. “翠蕤”는 물총새 깃털로 장식한 깃발을, “雲旂”는 구름무늬가 그려진 깃발을 의미한다. 푸른 깃발과 구름 깃발이 출렁이며 스친다는 것으로 위장군의 군대의 당당한 위용을 묘사하고 있다. 원호문도 두보의 이 시구를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다. 하지만 원호문은 두보가 깃발로 사용했던 “蕤”와 “旂”를 각각 “잎”과 “깃발 같은 구름”의 이미지로 바꾸어 인용했다. 원호문은 구름 가득한 가을하늘 아래 아직 잎이 무성한 소문산의 모습을 보면서 두보가 위장군의 위용을 묘사하면서 비유했던 깃발들이 생각났던 것이다.<sup>40)</sup>

원호문 산수시의 가장 큰 특징은 경물에 대한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독자가 경물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sup>41)</sup> 원호문의 이러한 산수시의 특징은 그가 두보의 시구 중에서도 그림을 그리듯 회화적으로 표현한 시구를 선호했던 것과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 3.4 감정의 예술적 승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호문은 전고의 변안법과 같이 두보의 시구를 변안하여 인용하기도 했다. 두보의 시구의 의미를 반대의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슬픔이나 우울한 감정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之子貧居久,	이 사람 빈곤한 곳에 머문 지 오래이나
詩文日有功.	시문에서는 날로 업적을 이루고 있으리

40) 원호문의 이 시에는 두시를 인용한 시구가 두 군데가 더 있다. “푸른 하늘엔 깎아지른 암벽(空靑斷石壁)”은 두보의 <不離西閣>의 “石壁斷空靑”이란 시구를, 본고에서는 생략하였으나 이 시의 “장안 성 꼭대기에 까마귀 꼬리 깃 어지러운데(長安城頭烏尾詭)”라는 구절은 <日暮>의 “城頭烏尾詭”라는 시구를 인용하고 있다.

41) 李知文, 앞의 논문, 36쪽.

苦心唯我見,	고심하는 것 나만이 알 수 있을진데
高誼許誰同.	고상한 덕 뉘와 함께 하리오
萬里虎食肉,	만리후와 같이 호랑이가 고기를 먹는 상이니
一鳴鷄長雄.	한 번 울면 수탉이 길게 우는 것과 같으리
皇天老眼在,	하늘에도 노안이 있으리니
且莫怨丘中.	산속에 있는 것 원망치 말게나

<寄贈龐漢茂弘(무홍 방한에게 부쳐 보내다)>이라는 제목의 시이다. 이 시는 ‘나(我)’와 ‘이 사람(之子)’이라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로 이루어진 五言律詩이다. 마지막 尾聯만을 제외하면 모두 청자의 상황에 대한 말들로 채워져 있다. 首聯에서는 寄贈詩답게 청자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운을 떼고 있다. 이어서 頷聯에서는 ‘빈곤한 곳’에서 고심하고 있을 청자를 위로하며 자신이 함께 헤쳐 줄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頸聯에의 5구에서는 집이 가난했던 後漢 班超가 “그대는 만리후가 될 상이다.”라는 관상가의 말을 듣고 난 후 西域에 나아가 큰 공을 세워 定遠侯에 봉해진 고사를 인용하여<sup>42)</sup> 청자가 귀하게 될 상을 가지고 있음을 넌지시 빗대고 있다. 이어서 6구에서는 唐代 李賀가 그의 시 <致酒行>에서 “내게 떠도는 혼이 있어 부르려 해도 할 수 없건만 수탉이 한 번 우니 천하가 밝아오누나.”<sup>43)</sup>라고 했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이 고사를 통해 새벽을 불러오는 수탉의 울음소리와 같이 청자 또한 벼슬에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경련에서 《後漢書》의 역사적 전고와 이하 시의 전고를 운용하는 것만으로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는지, 尾聯에서 또 다시 두보의 시구를 인용하고 있다.

惠子白駒瘦,	그대는 여윈 흰 망아지 타고서
歸溪唯病身.	계곡으로 돌아가는 그네 몸 병만 얻었으니
皇天無老眼,	하늘에는 노안도 없는 것인고

42) 《後漢書·班超傳》: 燕頷虎頭, 飛而食肉, 此萬里侯相也.(그대는 제비의 턱에 범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 날아다니며 고기를 먹는 상이니, 이는 곧 만리후가 될 상이다.)

43) <致酒行>: 我有迷魂招不得, 雄鷄一唱天下白.

空谷滯斯人.	빈 계곡에 이 사람을 머물게 하다니
崖蜜松花熟,	벼랑의 꿀은 소나무꽃 덕분에 익고
山杯竹葉新.	산속 술잔은 대나무잎술에 새로우니
柴門了無事,	싸리문 닫혀있어 다른 일 없어도
黃綺未稱臣.	하황공과 기리계는 신하 자처하지 않았네

五言律詩로 이루어져 있는 두보의 <送惠二歸故居(헤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며)> 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헤씨 집안의 둘째(신원은 未詳)를 전송하며 쓴 시이다. 수련에서는 여윈 망아지를 타고 병을 얻어가는 헤자를 묘사하여 쓸쓸한 귀향길을 묘사하고 있고, 이어서 함련에서는 헤자를 고향에 가게 한 하늘을 원망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헤자가 돌아가는 고향을 '벼랑'과 '산'으로 빗대면서 그곳에서 소나무꽃으로 만든 꿀과 대나무잎 술로 마음을 위로하라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련의 黃綺는 漢나라 초기 商山四皓 가운데 夏黃公과 綺里季를 병칭한 말로, 이들이 관직을 버리고 산속에 은거하였던 전고를 사용하여 청자가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원호문의 시에서 인용한 두보의 시구는 바로 함련이다. 두보가 헤자를 고향에 돌아가게 하는 하늘에 대해 인재를 보는 안목이 없다며 원망하던 말을 원호문은 희망이 담긴 위로의 말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sup>44)</sup> 원호문은 신하를 자칭하지 않고 은거했던 하황공이나 기리계를 청자의 상황과 대비시킴으로써 청자에게 벼슬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미련의 말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니 신세 한탄 말고 잠시 기다리게나

하지만 여기에 두시에 사용된 하늘의 이미지를 더해 미련에서 원호문이 말하고자 했던 말을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이 달라질 것이다.

www.kci.go.kr

44) 이러한 의미에서 전고의 의미를 자신의 견해로 바꾸어 사용하는 '纂案法'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池世權, 앞의 논문, 267쪽.)

[두보는 헤이를 전송할 때 하늘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하황공과 기리게도 벼슬을 하지 않았다며 절망적으로 얘기했네. 하지만 난 자네의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하네.] 분명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니 신세 한탄 말고 잠시 기다리게나

이제 원호문의 위로는 단순히 희망어린 위로가 아니다. 두시에 사용된 하늘의 이미지가 더해짐으로써 그 옛날 두보가 절망적으로 원망어린 어조로 말했던 것과 대비되어 희망의 논조가 배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산속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을' 청자에 대한 자신의 염려하는 마음을 희망이 가득 찬 위로의 말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단순히 원호문의 말만으로 위로하는 것보다 자신보다 못한 상황에 처해 하늘만을 원망했던 두보와 비교하는 것이 청자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 4. 결 론

금원대를 대표하는 시인 원호문은 스스로 두보의 시를 추종하고 있음을 표방하고 시의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두보의 시를 배우고자 했다. 가장 큰 특징으로 전대 시인들의 시구를 인용함에 있어 두보의 시구를 선호했던 것을 들 수 있다. 두시를 인용하고 있는 원호문의 시는 대략 110수이며 그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두보의 시구 중에서도 원호문은 감정을 서술하고 있는 서정적 시구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호문은 두보가 감정을 묘사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의미나 그 역할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시구로 바꾸어놓았다. 둘째는 두보의 시구를 인용하여 시적 시공간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자수에 많은 제한이 따르며 이미지에 의존적인 시라는 장르의 한계를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시구의 의미를 반대의 의미로 사용하여 그

극적인 분위기를 배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호문의 두시 인용의 문학적 의의는 먼저 주관적 정서의 객관화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서정시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데, 원호문의 시에서는 두보의 시구가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되고 있다. 원호문 자신의 시어로만 표현했을 때보다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서정시의 서사화를 들 수 있다. 원호문은 자신의 시적 배경으로 두시의 서사적 상황을 설정하기도 했다. 두보의 시구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원호문의 시 속에 두보의 시가 삽입되어 배경으로 이야기를 더하게 되어 서사성을 띠는 서정시가 된 것이다. 셋째는 읽는 시에 회화성을 가미했다는 점이다. 산수시에 능했던 원호문은 자연경관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선호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경물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두보의 시구를 즐겨 인용했다. 넷째는 시구를 번안하여 사용함으로써 두시에서 느껴졌던 슬픈 감정을 자신의 시에서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시인과 시인간의 영향관계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전대 시인의 시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호문과 두보의 영향관계를 언급할 때에는 먼저 원호문이 남긴 두시에 대한 문학적 평가에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원호문이 자신의 시에 인용하고 있는 두보의 시구야말로 원호문과 두보의 영향관계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이 이후 원호문의 문학이론 및 생애의 시기구분에 따른 문학적 경향의 변화 연구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 參考文獻 >

- 고진아, <金元代 杜詩學>, 《中國學研究》 제24집, 중국학연구회, 2003.  
 孔凡禮 編, 《元好問資料彙編》, 學苑出版社, 2008.  
 김만원 외, 《두보초기시역해》, 솔출판사, 1999.

- 金俊淵·梁恩鮮, <元好問 七絶 連作詩 研究>, 《中國學論叢》 35집, 고려대학교 중국학 연구소, 2012.
- 나병철, <장르의 혼합현상과 서사적 서정시의 전개>, 《畿甸語文學》 제7집,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2.
- 羅海燕·王素美, <試論元好問的喪亂詩創作>, 《兵團教育學院學報》, 2008年06期.
- [唐]杜甫 著, [清]仇兆鰲 注, 《杜詩詳註》, 中華書局, 2007.
- 方東樹, 《昭昧詹言》, 人民文學出版社, 1984.
- 葉夢得, 《石林詩話》, 藝文印書館, 1965.
- 安淑榮, <元好問詩歌藝術探析>, 《白城師範學院學報》, 2004年03期.
- [宋]嚴羽, 《滄浪詩話》, 藝文印書館, 1966
- 翁方綱, 《石洲詩話》, 廣文書局, 1971.
- 鈴木修次, 《漢詩大系20·元好問》, 集英社, 1983.
- 姚乃文, <試論元好問的山水詩>, 《晉陽學刊》, 1990年06期.
- [金]元好問 著, 狄寶心 校注, 《元好問詩編年校注》, 中華書局, 2011.
-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001.
- 이종진, 《원호문시선》, 문이재, 2005.
- 李知文, <元好問山水詩的成就及其特色>, 《貴州社會科學》, 1991年02期.
- 王錫九, <論元好問的七言古詩>, 《淮陰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1年02期.
- 張 靜, <錢鍾書先生對元好問詩歌研究的貢獻>, 《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年06期.
- 錢鍾書, 《談藝錄》, 中華書局, 1984.
- 中國元好問學會 編, 《紀念元好問800誕辰文集》, 山西人民出版社, 1992, 198쪽.
- 池世樺, 《元好問詩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 陳 琛, <杜甫與元好問七言律詩比較>, 《皖西學院學報》, 2006年03期.
- 詹杭倫, <論元好問七言律詩的審美結構>, 《民族文學研究》, 2011年03期.
- 최일의, <원호문의 생애와 시>, 《중국문학이론》 제11·12집,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9.
- 許 總, 《杜詩學發微》, 南京出版社, 1989
- 赫蘭國, 《遼金元時期的杜詩學》, 四川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1.

## &lt; 中文提要 &gt;

元好問은 金元時代 대표 詩人, 因其 詩歌中 還包含 著唐宋 詩의 風格, 所以 歷代 批評家 都認爲 他是 唐宋 詩의 集大成者. 然而 他的 詩歌中 也有 還未 得到 文學 批評家 們 充分 重視 的 作品, 譬如 ‘引用 詩’. 他的 引用 詩 一共 有 200 餘句, 其中 關於 唐代 杜甫 詩의 引用 詩 大約 有 110 首.

引用 杜詩의 元好問 詩歌 有 三個 特徵. 第一, 直接 引用 杜甫의 抒情 的 詩句. 元好問 把 杜甫 表 達 感情 的 詠懷 詩句 直接 引用 在 自己 的 詩裏. 第二, 因 通過 杜詩의 引用 而 擴大 了 詩의 時空間 的 背景. 第三, 詩句의 翻案.

元好問 引用 杜詩의 文學 意義 之一 就是 主觀 情緒 的 客觀化. 元好問 把 杜甫의 詩句 使用 爲 客觀 對應物. 這使 不僅 很 有效 地 傳達 詩人 的 感情, 而且 容易 形成 與 讀者 之間 的 紐帶. 元好問 引用 杜詩의 文學 價值 除了 主觀 情緒 的 客觀化 以外, 還有 抒情 詩의 敘事化. 元好問 通過 杜詩의 敘事 的 背景 來 設定 了 自己 作品 的 背景. 這使 元好問의 抒情 詩 變成 爲 帶著 杜詩 故事 的 一種 敘事 詩. 第三, 景物 描寫 的 繪畫美. 元好問 寫作 山水 詩 時 像 繪畫 一樣 變 描寫 化 無窮 的 山水 奇景. 他 引用 杜甫 的 詩句 時 也 偏愛 反映 這種 山水 詩의 技巧 的.

關鍵詞: 元好問、杜甫、引用、翻案、繪畫化、客觀化、敘事性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7. 15.	2013. 8. 2.	2013. 8. 21.	2013. 8. 22.	2013. 8. 31.